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Psychology
2004. Vol. 23, No. 1, 101-136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정 진 경† 양 계 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문화간 이동과 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응문제에 대한 연구는 1980년경부터 크게 증가하여, 연구성과들이 양적으로도 쏟아져 나왔고,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이론들과 연계하여 질적으로도 이론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적응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정과 최근의 현황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우선 사회내 접촉과 사회간 접촉의 구분, 문화적응을 가리키는 여러 개념, 문화적응의 결과 등, 이 분야 관련 연구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민자, 체류자, 난민, 토착민, 민족문화집단, 관광객 등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집단 별로 지금까지 다루어온 주요 연구주제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적응 분야의 주요 이론적 패러다임들인 문화 학습이론, 스트레스 대처 이론, 사회 정체감 이론, Berry의 문화적응 이론 등의 전개와 현황을 논의하였다. 결론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응의 문제들과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약한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응, 문화접촉, 문화충격

---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3-BM2004).

† 교신저자 : 정 진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chungj@chungbuk.ac.kr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문화간 이동과 접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념 및 종족간의 분쟁으로 난민이 대량 발생하여 제 3국으로 가서 정착하였고, 자발적인 이민도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급등하였다. 제 1세계로는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지사나 해외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해외여행이 쉬워지면서 외국으로 관광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여름 휴가철에는 지구촌이 외국 여행객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문화를 유지하면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하여 폐쇄성을 지녀왔으나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외국과의 접촉이 증가하여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접촉과 교류도 급증하였다. 2003년 한 해 동안 유학·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이 30만을 헤아리고, 특히 초중고시기에 유학을 하는 조기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구미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적지 않은 적응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문화적 적응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자기발전과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적응에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낙오하면 개인적 좌절, 경제적 낭비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신용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2003년에는 총97개 나라에서 38만 8천여 명이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다(법무부, 2004). 한국경제에서 이들은 이미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한국인들은 이들을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하며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경험, 특히 인종적, 민족적으로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더러 한국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지사 설립에 따른 문화간 접촉도 증가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는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급증하였다.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적절히 응용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적 성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기업의 해외 지사 근무자가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괴로움에 더하여 기업으로서는 업무상의 손실, 그 직원과 가족을 파견하는 비용,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 파견하는 비용까지 합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등장도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응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탈북자들의 수는 2003년에 4천 명을 넘어섰다. 이들 탈북자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남한생활을 시작하지만, 점차 현실에 부딪혀가면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익숙한 삶의 공간을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한 슬픔과 우울을 나타내고, 남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의심, 분노, 편집증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경제적인 능력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는데,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실직하여 복지제도에 기대게 되거나 청소년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탈북자들의 적응 문제는 탈북자들만의 문제

가 아니라 남한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통일을 위한 연습과제와도 같은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앞으로도 접촉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문화적응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정도는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어렵고 기업하기도 어려운 나라라는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홍콩의 컨설팅업체인 정치경제위험자문사(PERC)가 400명 이상의 아시아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11개 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났다(유명기, 2000에서 재인용). 한국인의 어떠한 특성들이 이렇게 외국인의 문화적응을 어렵게 만드는지, 외국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문화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한국인의 정서적,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고, 한국의 유교문화를 심리학적 조망에서 다룬 연구들(한덕웅, 2001)과 문화심리학의 조망과 정체성(최상진, 한규석, 1998), 방법론(김정운, 한성열, 1998; 한규석, 최상진, 2000) 등을 다룬 연구, 문화 유형과 성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긍호, 2003)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의 특성에 관해서는 정, 한, 심정, 체면, 눈치, 의례성, 핑계 등에 대한 최상진(2000)의 연구가 새 분야를 개척하였고, 가족주의(한성열, 1994), 연고주의(이종한, 1992), 인정주의(한규석, 2000) 등의 관계주의적, 집단주의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한규석(2002)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정, 체면, 눈치, 의례적 대화 등의 독특한 현상들이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아서 한국인의 외국 적응이나 외국인의 한국 적응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특성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로 조기유학생의 인터넷 상담의 효과를 다룬 연구(박영숙, 최상진, 박광배, 김주한, 2002), 조기유학생의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한준상, 박현숙, 기영화, 강양원, 메리엄,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한성열, 채정민, 2003) 등이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모지라 할 수 있다. 그 외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이질문화를 다루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인류학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연구한 것이 소수 있다(설동훈, 1997, 유명기, 1997). 앞으로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 뿐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한국에서 문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던 것에 비해 외국에서는 문화간 이동과 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응의 형태나 양상 및 그 결과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중반 경부터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1980년경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 성과들이 양적

으로도 쏟아져 나왔고, 사회, 발달, 성격, 비교문화, 건강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과 연계하여 질적으로도 이론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설계나 통계분석 등에서도 더 단단하고 세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주로 다루어 온 연구대상 집단들을 살펴보고, 중요한 이론적 패러다임들을 개관하고 평가한 후, 앞으로의 연구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화적응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연구는 매우 미약한 현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문화적응연구의 주요 개념들

사회내 접촉과 사회간 접촉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문화접촉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화접촉(culture contact), 또는 문화간 접촉(intercultural contact)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위집단을 가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내 접촉(within-society contact)과, 한 사회의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일이나 여행, 유학 등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발생하는 사회간 접촉(between-society contact)이다(Bochner, 1982). 문화간 접촉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회간 접촉에 집중되어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 교육, 여가활동 등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유학생, 외국 여행자, 해외 파견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간 접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와 병행하는 것이다.

그런 한 편, 많은 국가들이 단일한 문화를 지닌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사회내 접촉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꾸준히 이어지는 이민과 내전, 기근 등의 재난을 피해 다른 곳에 정착한 난민들은 이주해간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점차 자리잡고 세대를 이어가며 살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 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사회의 적응문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Ward, Bochner, & Furnham, 2001).

문화적응 개념

문화접촉 상황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초기에 문화접촉 상황에서 나타나는 집단수준의 변화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였는데,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1990).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문화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수준에서의 변화로 개념화되었다(Berry, 1997). Graves(1967)는 집단수준의 현상으로서의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개인수준의 현상으로서의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을 구분하였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 함은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결과 나타난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말하고,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과 적응(adaptation)은 개인의 심리에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용어를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Berry(1997)는 용어는 같이 쓰더라도 문화적응 연구에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혼동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집단이 문화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의 경험이 같거나 참여의 정도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편에서는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초기의 정의와는 다르게 문화적응 과정의 결과 중 하나인 동화(assimilation)와 혼동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어권의 연구자들은 상호문화화(intercultu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Camilleri, 1990). 이는 '문화간 접촉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접촉의 결과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서 살게 될 때 겪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과정의 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았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Oberg(1960)의 문화충격(culture shock) 이론은 타문화에 체류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밀월(honeymoon) 단계로,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황홀,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위기 단계로서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회복 단계로서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이고, 마지막은 적응 단계로서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단계이다.

Oberg를 비롯하여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단계에 초점을 맞춘 초기의 이론들은 적응의 과정이 초기의 감탄, 이후의 좌절, 점차적인 적응의 U-curve를 따른다고 보았고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경험적으로 밝혀내려는 시도도 하였다(Lysgaard, 1955). 더 나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U-curve를 겪게 되며, 그 과정을 종합하면 W-curve를 이룬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Gullahorn & Gullahorn, 1963).

1970년대부터 문화적응 연구자들은 다양한 적응의 양태와 유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간에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속성과 정도는 그 접촉이 발생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 Ward, Bochner와 Furnham(2001)은 문화접촉의 결과를 집단 수준의 결과와 개인적 수준의 결과로 나누어, 각각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집단 수준에서 학살(genocide)은 접촉하게 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모두 죽이는 것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사례처럼 밖에서 침입하여 원래 거주자들을 학살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독일의 나찌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과 같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다. 집단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결과는 동화(assimilation)다. 동화는 주로 식민지에 침략국의 문화나 가치 등을 강요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많은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나 이미 존재하는 소수민족에게 주류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적용해왔다. 그 결과 문화간 차이가 없어지고 생활방식의 다

양성이 줄어들고 많은 고유한 전통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동화 정책은 그 이면에 주류 문화가 소수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집단 수준의 세 번째 결과로 격리(segregation)가 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이 의도적으로 집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행동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격리를 요구하는 쪽이 다수집단일 수도 있고 소수집단일 수도 있다. 격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사회가 점점 세계화되고 상호의존적이 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집단 수준의 접촉에서 마지막 결과는 통합(integration)이다. 통합은 동화와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정확히 정의하면 자기 문화의 핵심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중요한 면도 받아들이는 적응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결과 역시 크게 네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통과(passing)다. 이는 보통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보다 낮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높다고 여겨지는 사회로 이주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태도로, 본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민족적 정체감은 상실하게 된다(passing은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고 주류집단의 구성원인 척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국수주의(chauvinism)로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고 원래 자신의 문화를 과장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두 문화 사이에서 망설이고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두 문화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인적 수준의 마지막 결과는 중재(mediating)로 두 문화를 모두 받아들여서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방법은 개인적 성장과 집단간 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Ward et al., 2001).

Berry(1990, 1997)도 이와 유사하게 문화적 접촉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에서 구분하였다. 개인수준에서 그는 행동, 태도와 인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문화적응으로 보았다. Berry는 이론적 체계와 함께 경험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를 더욱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두 개의 차원 즉, 1)모국의 문화적 정체감 및 특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지의 여부와 2)새로운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여 문화적응의 결과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초기의 논의들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주한 사람이 수용국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단순히 문화간 차이를 해소하면 된다는 발상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들은 문화적 다양성이란 것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유해야 할 자산으로 여기고, 이주자가 수용국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보다는 양방의 변화를 통한 상호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적응 분야의 큰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이념적 지향에 따른 논리의 변화만이 아니고,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한다. 문화적응의 다양한 유형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내 가면서 이론적 틀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문화적응 집단들

문화접촉의 결과 나타나는 집단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Berry & Sam, 1997). 이동성(mobility), 자발성(voluntariness), 그리고 영속성(permanence)이다. 이동성은 자신이 새로운 문화로 옮겨갔느냐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느냐의 문제로, 이민자나 난민들은 새로운 문화로 옮겨간 사람들이고 토착민과 민족문화집단은 새로운 집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자발성은 문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는가의 여부로, 이민자나 유학생 등의 체류자들은 자발적인 사람들이고 난민은 비자발적인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영속성의 차원은 얼마나 오래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지의 문제로, 이민을 간 경우라면 비교적 오랜 기간 새로운 환경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여행자나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의 체류자들은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다.

이민자(Immigrants)

이민자는 자발적으로 장기간 새로운 문화로 옮겨가서 다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민자의 수는 현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대략 1억 명 이상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Russel & Teitlebaum, 1992), 미국과 캐나다 두 국가가 받아들이는 연간 이민자는 수 백만 명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민자들은 보통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새로운 국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대다수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주를 하게 되며, 따라서 가난한 국가에서 더 잘사는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민자 집단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본국과 이주국과의 문화적 거리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 두 경우에 문화적 거리는 상당히 다르며 문화적 거리에 따라 그들의 적응이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정체감 문제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즉, 자신의 원래문화(original culture)와 주류문화(host culture)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때 원래 자신의 문화와 주류문화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적응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Oetting & Beauvais, 1991; Gil, Vega & Dimas, 1994).

체류자(Sojourners):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

체류자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 사람들로 비교적 단기간 머무르고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말한다. 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로는 유학생, 외교관, 해외 주재원, 군인, 선교사 등이 있다. 심리적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체류자들의 적응은 비교적 용이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특별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할만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언어나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역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유학생 및 사업상 해외에 머무르게 되는 해외주재원들의 급격한 증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체류자의 성별(Fong과 Peskin. 1969), 연령

(Hull, 1978), 성격(Basu & Ames, 1970), 이전의 체류경험(Klineberg & Hull, 1979)등이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응을 잘 하며, 연령이 어릴수록 더 적응을 잘 하였다. 성격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일수록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itt(1983)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강하고 덜 감정적인 사람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업체의 해외주재원의 경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의 경우는 주류문화 사람들의 태도와 상호작용 정도가 적응에 영향을 주는데,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이 적대적이거나 외국인을 싫어하게 되면 일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적응이 어렵게 된다(Haily, 1996; Stewart & Delisle, 1994; Kopp, 1994), 또한 회사에서 받은 임무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 해외 주재원이 해외에 나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회사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체류의 원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적응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숙달된 조언자가 도와주느냐의 여부도 해외주재원의 성공적 적응의 열쇠이다(Kram, 1985). 이는 현지에서 뿐 아니라 떠나기 전부터 영향을 미치는데, 떠나기 전에 해외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사전 지도를 제공받았을 때 더 적응을 잘 하게 된다(Harvey, Speier, & Novicevic, 1999). 새로운 환경에 도착한 후, 현장에서의 조언은 새로운 작업에 대해 더 빨리 배우게 하고 조직에 더 많이 헌신하게 하며 새로운 문화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적응을 촉진시킨다(Chao, Walz, & Gardner, 1992).

난민(Refugees)

난민은 문화적응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집단이다. 그들은 비자발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착하였으며, 장기간 머무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문화적응 이전의 경험이 매우 열악하여 전쟁이나 기아, 고문, 치욕, 박탈, 폭력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서 빠른 적응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제감과 자기 확신감의 상실로 인한 지나친 의존성,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및 수동성 등을 들 수 있다(Rangaraj, 1988). 연령도 중요한 요인인데, 베트남 난민의 경우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Thomas & Balnaves, 1993), 청소년의 경우 역시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Beiser, Barwick, & Berry, 1988; Ahearn & Athey, 1991). 아마도 노인집단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고,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문제와 문화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겪게 됨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문제로 생각된다.

난민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은 중국말을 모르는 베트남 사람보다 더 적응을 잘 하고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캐나다에 사는 화교집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Blondel, 1982). Shisana와 Celentano(1985)의 나미비아 난민 연구에서도 역시 사회적 지지가 난민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착민(Indigenous peoples)

문화적응은 집단적 소수자나 옮겨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집단을 받아들인 주류사회인 역시 문화적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으로 주류사회 집단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하는 가장 극적인 경우가 토착민들의 경우이다. 미국의 인디언, 호주의 토착민, 남아프리카의 흑인 원주민 등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 강한 집단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문화의 변화를 강요한 경우다. 대부분의 경우 침략자가 더 강력한 위계구조로 이루어진 사회를 가지고 있고 토착민들은 더 평등하고 느슨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심할수록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Berry, 1976; Sinha, Mishra, & Berry, 1992).

토착민들에게 이러한 식민지화는 비자발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다. 이민자나 체류자들이 미래에 대하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토착민들의 이러한 상황은 문화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자립성을 빼앗기고, 이들은 분리정책이나 동화정책의 대상이 된다. 보호지역(reservation) 지정으로 거주지를 제한 당하고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리정책과 선교사나 교사를 통한 교육과 정책적인 강요 하에 처하게 된다.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동화정책의 결과, 많은 토착민들은 그들의 언어, 정체성, 생존기술을 잃고 주변화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영토의 상실은 심각한 문화 붕괴와 스트레스를 초래하였고(Niezen, 1993), 강제로 거주지를 이전 당한 경우는 난민들이 겪는 상황과 유사하였다.

이렇게 토착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자살률, 배우자와 아동의 학대, 약물남용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Hansen, 1985). Berry(1994)는 이러한 병리적 현상들이 본래의 토착민 사회나 식민종주국 사회 어느 쪽의 특징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주변화의 느낌, 정체성의 상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은 두 사회간의 관계의 양상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 어려움의 극복은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즉 식민화의 압력을 걷어내고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문화 집단(Ethnocultural groups)

민족문화 집단은 다문화사회에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을 말한다. 일본의 아이누족이나 대만의 고산족, 프랑스의 브레통지방 사람들, 스페인의 바스크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캐나다에 사는 프랑스인, 미국에 사는 중국사람, 한국사람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민을 통해서 그 집단이 형성된다.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집단 중에서 가장 적은 문제를 겪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였고,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며 적응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전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이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통합(integration)으로 세웠다면, 어떤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자칫 하면 주류문화와 분리(segregated)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큰 문화집단이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가능하다. 반대

로 국가의 정책이 동화(assimilation)라면 소수자의 문화적 특징을 버려야하는데, 이런 경우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 Murphy(1965)는 문화적으로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가 문화적응에서 더 적은 위험요인을 가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압력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특성을 가진 문화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문화 집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속성은 영토권, 자치권, 언어권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퀘벡시에 사는 프랑스인들은 언어나 지역성, 정체감 등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지역의 밖에서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자기 지역에서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권리를 주장한다(Breton, 1985; Clément & Noels. 1991). 이런 이유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족문화 집단은 문화적응에 대한 태도에서 통합이나 동화보다는 분리(separation)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문화 집단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민족 정체감이다. 이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Phinney 등(1994)의 연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의 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백인은 미국인이라는 정체감이 높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감은 낮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민족적 정체감이 높고 미국인이라는 정체감은 낮았다. 이에 비해 스페인계는 미국인이라는 정체감과 민족적 정체감이 모두 높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스페인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이라는 정체감과 민족적 정체감이 모두 높거나 자신의 민족정체감을 가진 경우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네 집단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민족적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단지 백인 집단에서만 미국인이라는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 연구는 단지 미국인이라는 정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특정한 정체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폴란드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정체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한 Boski(1994)의 연구에서는 폴란드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국에 대한 정체감과 주류문화 정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사회적 통합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Tourists)

국제 관광객은 문화간 접촉을 하는 사람들 중 가장 숫자가 많은 집단으로서, 2010년경에는 매년 9억 4천명 정도가 움직일 것으로 추산한다(Vellas and Becherel, 1995). 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구학적, 경제적, 지리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가 최근 20년 동안에 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의 접촉이 즐거운 일인지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지, 관광에 대한 동기가 문화의 학습을 포함하는지, 접촉이 빚어내는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증가시키려면 어떤 체계적인 중재가 가능한지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Ward et al., 2001). 외국 여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외국 여행이 타문화에 대한 인내와 이해를 증가시키고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낙

관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관광이란 워낙 피상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라 평화의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도 한다.

관광객과 수용국민의 접촉은 다른 문화간 접촉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체류자, 이민자 등 살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과는 목적도 다르고, 아주 단기간 머물며, 많은 경우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부유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관광객들은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Berno, 1995). 가장 일반적인 만남은 관광객이 현지인들에게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대개의 경우 경제적 우위에 있고 현지인들이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데, 동등한 지위와 협력적인 관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것을 강조하는 접촉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비대칭적인 만남은 조화로운 집단간 관계로 이끌기는 어렵다.

또한 상호작용이 짧고 피상적이라는 점이 상호간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 문화재나 쇼핑 위주의 관광, 단체관광 등은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관광객들이 문화간 만남을 흥미롭고 신기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하여,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을 우르르 몰려다니는 천박하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은 상업화되고 왜곡되고 착취적이 되기도 한다(English, 1986). 현지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배낭여행자들이다(Locker-Murphy & Pearce, 1995). 이들은 대개 젊고 시간도 많아서 현지의 곳곳을 속속들이 누비고 다니고, 허름한 곳에 머물고 지역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토착음식을 먹는다. 관광경험으로 자신이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 연구결과의 축적은 많지 않다.

관광객이 현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고용, 건설, 산업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는 현지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예를 들면, 단순 서비스직만 늘고, 알코올 남용, 성매매 등의 문제가 생기고,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성지가 시장처럼 시끄러워지고, 산업이 왜곡되는 것 등이다. 관광객의 존재가 현지인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별로 많지 않으나, Berno (1995)는 Cook 섬의 원주민 연구에서 관광객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통적인 관습이 흐려지고 있고, 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의 손상, 가치관의 변화, 특히 집단주의의 감소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이민자, 체류자, 난민, 토착민, 민족문화집단, 관광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다룬 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분류는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온 대표적인 체계로 거의 모든 문화간 접촉의 범주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를 우리 입장에서 평가하면, 서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서 한국 사회의 현상들은 적절히 반영하고 분류해내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류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수년간만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서 유학생과 기업의 해외주재원이 주요한 부류로서 연구되어 왔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위의 분류에서는 체류자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제3세계의 어려운 나라에서 경제사정이 조금 더 나은 나라로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거의 없다. 우리가 연구를 축적할 수 있다면 체류자에 속하는 범주 하나를 추가하면서, 체류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이론 및 결과를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위의 분류에서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애매하다. 이들은 중국을 떠돌 때는 난민에 가까우나 남한으로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민에 가깝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민의 경우와는 달리 언어나 문화, 관습 등이 거의 비슷해서, 이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매우 다른 적응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세계가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어 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응 집단이 앞으로도 출현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성을 더해줄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화적응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 분야의 이론적 체계의 형성과 다양한 범주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의 주요 이론적 접근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는 초기에 이민자와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임상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로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학습 접근, 스트레스 대처 접근, 사회 정체감 이론 등의 패러다임들이 등장하여 활발한 연구를 펼쳤다. Ward 등(2001)은 그들의 최근 저서에서 이러한 연구의 현재까지의 성과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들과 이론적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많은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Berry의 문화적응 모델과 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응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는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1903년 미국의 자료를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70%가 이민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그 결과는 그 당시 미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Furnham & Bochner, 1986). 그러나 이민국에서 조사했던 연구보고의 결과는 많은 혼동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되었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였음이 밝혀졌으며(Robertson, 1903), 그 이후의 조사들에서도 이민자들의 입원률이 과대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져서(Ødgaard, 1932), 이민자와 현지인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고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때에 이루어진 후속 연구들은 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로,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연구들이 주로 정신병원 입원에 초점을 둔 대단위 역학조사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우 임상적인 접근을 하고 의학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심각하고 극단적인 심리적 기능장애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신병원 입원률이 집단마다 상당히 달랐지만 그 연구들은 이민이 정신병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민과 정신병의 관계가 두 가지로 설명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정신병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을 가게 되면 그 결과 정신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Ward et al, 2001).

1980년대의 연구는 이민자들에게서 일관되게 정신병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에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이민자 집단과 현지인들 간에 정신병리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Brewinm 1980; Kim, 1984), 또는 오히려 반대

로 이민자 집단의 병리수준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까지도 발표되었다(Lasry, 1977). 이런 맥락의 연구들은 왜 이민자 집단이 심리적 질병률이 높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심각한 정신병에 대한 연구보다는 덜 심각한 수준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대처, 그리고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초기 문화적응관련 연구들을 보면 주로 정신병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보다 경미한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문화적 적응을 위한 적절한 과정이나 효율적인 대처방식 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초기 이민자 연구에 이어 1950년대부터는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는 주로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하여 나타난 결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달라지면 연구의 결과도 달라지는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Ward et al., 2001). 다루고 있는 주제도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의 정신건강, 즉 불안, 우울, 적대감 등의 정신병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임상적 접근을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임상적 접근을 하게 되면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를 개인의 대처능력 부족이나 취약한 성격 때문인 것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이민자에 대한 연구나 국제학생에 대한 교육분야의 연구는 비교문화 접촉을 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을 공헌으로 볼 수 있다.

문화학습(Culture learning) 접근

1980년대에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학습경험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출현하였다. 문화적 적응을 위한 적절한 개입은 치료가 아니라 준비,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술의 획득이라는 것이다(Furnham & Bochner, 1982; Klineberg, 1982). 문화학습(culture learning)이란 체류자가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문화학습 접근에서는 문화접촉의 행동적 측면을 다루며, 사회 및 실험심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옆 사람과의 거리, 신체적 접촉의 의미, 제스츄어, 태도나 감정의 표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의 시선, 인사하기, 자기노출, 요구하기, 거절하기, 자기주장하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학습 접근의 대표자인 Argyle(1969)은 주로 사회적 기술과 대인간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비교문화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민자나 유학생, 또는 난민 등의 외국 체류자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적절히 상호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민감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 적응(adaptation)이란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라고 보고, 다루는 주제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 정도,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능성,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 친구 관계 형성능력에 따른 차이, 이전의 외국경험, 문화적 거리, 문화적 정체감, 문화간 훈련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학습 접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째는 의사소통 맥락정도이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많은 의존을 한다. 반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제한된 정보만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주로 상황적인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애매한 방식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Gudykunst & Matsumoto, 1996).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그 문화를 이해하거나 그 문화에 적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노출의 정도와 사회적 침투(Gudykunst & Nishida, 1986), 얼굴 표정(Ting-Toomey, 1988), 접촉거리(Argyle, 1982)등의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이러한 주제들은 문화의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문화학습 접근에서 다루는 두 번째 문제는 상호간의 에티켓이다. 사람들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반면,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체면을 깎지 않도록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예의로 생각한다(Lin, 1997).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니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예'라는 말이 '아니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는 '글쎄요'라는 말도 될 수 있다(Brein & David, 1971). 또한 멕시코 문화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심한 모욕으로 여기는 반면, 미국에서는 솔직한 피이드백을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한다(Lindsley & Braithwaite, 1996). 이런 부분은 특히 기업의 해외주재원들이 반드시 배우고 가야하는 중요한 지식이다. 그 이외에 상호간에 쳐다보는 것의 의미[1], 신체적 접촉의 의미[2], 특정한 제스츄어[3] 등의 비언어적인 측면도 학습의 대상이 된다. 이런 종류의 비언어적 측면이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지식 없이 함부로 제스츄어를 사용했다가 현지인과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업가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문화학습 접근은 비교문화 경험에서의 문화충격(cultural shock)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딜레마도 가지고 있다. 첫째는,

1) 아랍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상호간에 더 많이 쳐다보지만 유럽에서는 비교적 덜 쳐다보고(Watson, 1970), 잘 쳐다보는 문화의 사람과 잘 쳐다보지 않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게 되면, 잘 쳐다보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주의집중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모욕으로까지 해석된다(Burgoon, Coke, & Coker, 1986).

2) 비접촉 문화에서 접촉은 매우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접촉빈도가 높은 문화 사람이 접촉빈도가 낮은 문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매우 차갑고 호의적이지 않고 무감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접촉빈도가 높은 문화 사람은 성희롱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Ward, et al., 2001).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는 공적인 사회태도를 강조하는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을 매우 꺼린다(McDaniel & Andersen, 1998).

3)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드는 행동이 승인이나 칭찬의 의미이지만 그리이스에서는 모욕을 의미한다. 또, 대부분 영어권에서 OK를 의미하는 손 모양이 프랑스에서는 영(zero)이나 가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Ward. Bochner, & Furnham, 2001).

문화적응을 어떤 의미에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이민자들이나 체류자들이 단순히 현지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자신의 원래 문화와의 관계는 약화되거나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민자들이나 체류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을 하면,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두 문화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현지인들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같은 국가 출신자들과도 동시에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현지의 언어와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본국의 말을 사용하고 본국의 생활습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문화학습의 방향은 '양문화에서의 유능성(bicultural competence)'일 것이다. 즉, 두 문화의 언어 및 생활습관 모두에 대해 유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을 촉진시키고, 기술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다 (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 훈련은 이민자들이나 체류자들에게 현지 문화에 적응(adjust)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문화학습 접근은 문화적 적응의 개념을 이민자나 유학생, 난민 등의 체류자들이 현지문화를 배우고 맞추어서 동화된다는 의미로 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문화적 접촉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새로운 문화에 대한 모든 측면의 지식(물리적, 기술적, 기후적, 정치적, 법적, 교육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좋으나, 학습한 내용을 사회적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Furnham & Bochner, 1982).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의, 갈등해결,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황 특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적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적응에 대한 학습이론적 접근은 초기에는 이주해간 사람들이 수용국의 문화를 배워서 그 문화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적응으로 보았다는 점, 즉 문화적응을 일방향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라 할 수 있지만, 이 견해는 점차 변하여 지금은 두 문화권에서 모두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적응으로 정의하여 그 한계를 일단은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실제로 연구의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고, 문화학습 접근의 강점이라 할 문화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에도 적용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양방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용국의 주민들이 이주자를 편견 없이 대하도록 학습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문화훈련 프로그램의 한 예로 북한사람이나 탈북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남한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문화이해지(文化理解誌, culture assimilator) (정진경, 2000; 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헌, 2001)를 들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Stress and coping) 접근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문화적 이동을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적 자원과 대처반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문화학습이론이 적응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교문화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 이론이라면,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문화적응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 하겠다. 이 접근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접근의 영향을 받았는데, 분석의 틀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뿐 아니라 상황적 차원도 함께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비교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하여 찾아내려고 했다.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Lin, Tazuma, & Masuda, 1979)이나 통제신념의 위치(Locus of control), 외향성,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과 같은 성격특성(Ward & Chang, 1997; Ward & Kennedy, 1992), 변화에 대한 인지적 평가(Chataway & Berry, 1989), 대처 방식(Shisana & Celentano, 1987), 그리고 사회적 지원(Adelman, 1988), 향수병(Pruitt, 1978), 결혼여부(Naidoo, 1985), 본국과 수용국과의 관계(Furnham, 1985), 그리고 기타 성, 인종, 취직여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이주과정에서 경험한 생활사건의 의미,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민자나 체류자의 인지적 평가, 그리고 변화를 다루는 대처전략의 선택과 수행 등에 초점을 둔다. 핵심적인 가정은 문화간 접촉과 변화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이민자의 원래 사회와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특성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적 접촉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대처반응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문화적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은 개인과 상황의 특성에 의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언뜻 보기에는 스트레스 대처 접근이 초기의 의학 또는 임상모델과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의학 또는 임상모델은 문화간 접촉에 대해 사람들이 정신병리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반면,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인한 결과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과정이나 성공적인 적응에 더 관심이 있다. 둘째로,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적응경험에서 사회적 상황의 역할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의학모델 또는 임상모델보다 더 넓은 시각을 지닌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문화적 접촉의 많은 변인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예를 들면, 정서적 혼란, 자아 존중감, 정신신체문제,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 요인들), 다양한 이주집단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예를 들면, 관광객, 노동자, 외교관 등)(Ward et al., 2001)..

문화적응에 대해 스트레스 대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마찬가지로 일차적 대처와 이차적 대처전략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는데, 일차적 전략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의 불리한 특성을 변화시키고자 과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차적인 전략은 행동적이기보다는 인지적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일차적인 대처는 자신에게 환경을 맞추는 것이고, 이차적인 전략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Lazarus,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문화적응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한 연구(Ward, Leong, & Kennedy, 1998)에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이차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재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덜 경험하고 우울의 증상들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환경을 변화

시킬만한 힘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체류자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이차적인 대처방식이 좀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적응 그리고 문화적 접촉의 시간적 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Oberg (1960)의 문화충격의 단계 이론인데, Oberg의 이론은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만큼이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하나는 경험적 연구 결과, U-curve에 대한 증거가 약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되었으며(Church, 1982), 이 이론을 증명하고자 했던 실증연구도 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횡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Klineberg & Hull, 1979; Selby & Woods, 1966). 두 번째 문제는 이론 자체가 사후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공론적 사고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다른 문헌들에서는 이민자들이나 체류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 초기시기에 가장 심각한 적응문제를 경험한다고 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체류자들의 적응을 추적한 연구(Ward & Kennedy, 1996a)에서 드러나는데, 뉴질랜드에 도착한 말레이시아인과 싱가포르인을 도착 후 한 달 이내에 인터뷰하고,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각각 인터뷰한 결과, 우울증이 높은 시기는 1개월이 되었을 때와 1년 동안 살았을 때였다. 이는 이주 초기에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가장 많다가 4개월에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Westermeyer, Neider, & Callies, 1989)와 유사하다. Ward와 Kennedy의 또 다른 연구(1996b)에 따르면 뉴질랜드를 떠나서 외국으로 간 사람들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한 결과, 뉴질랜드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지 2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뉴질랜드를 출발하기 전보다 훨씬 우울증이 높았고, Zheng과 Berry(1991)의 연구에서도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도착한지 4개월이 되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화적응의 단계이론은 최근 인기를 별로 끌지 못하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민자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맞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Kealey(1989)가 277명의 캐나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U-curve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U-curve 이론을 대신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문화적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새로운 적응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접촉에 따른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매우 전망이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 특히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관련되는 기타 변인들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여부, 문화적응의 방식, 그리고 문화적응을 하게 되는 위치 및 인구학적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각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의 측면을 보면, 권위주의적인 성격, 완고한 성격, 자민족 중심주의적 성격은 심리적 적응을 방해하며(Lock & Feinsod, 1982), 반대로 외향성, 민감성 등은 적응을 촉진키는 것(Gardner, 1962)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통제소재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이 달라지는데, 외적 통제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혼란이 높고(Lu, 1990), 생활만족 수준이 낮았으며(Seipel,

1988; Neto, 1995),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rd & Kennedy, 1993b).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성격 및 정신건강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향성이나, 통제의 소재에 대한 신념에 대한 결과들은 일관되지 못하다. 예를 들면, Partridge(1987)의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신념이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Ward와 Chang(1997)은 문화적 일치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문화적응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현지인의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격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 역시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Adelman, 1988; Fontaine, 1986) 및 신체적 건강(Schwarzer, Jerisalem, & Hahn, 1994)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이민자 및 난민의 정신적 증상의 출현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Lin, Tazuma, & Masuda, 1979). Naidoo(1985)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Stone, Feinstein과 Ward(1990)의 연구에서도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여성 체류자들의 심리적 안녕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요인이 밝혀졌으며, Ataca(1996)의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 정신 신체적 질환, 일반적인 불만족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 문제가 결혼생활의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기타 아는 사람의 지지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데,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있어 가장 현저하고 강력한 지지의 원천으로, 본국 출신 친구가 있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이에 비해, 현지인과의 상호관계 및 현지인 친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현지인 친구가 이민자들의 심리적 문제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Furnham & Li, 1993), 현지인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체류자들의 심리적 안녕과 정적으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Sears & Ward, 1990; Ward & Kennedy, 1993a).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현지인 친구들과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일반적인 만족도, 학업성취, 학업성취 이외의 학교생활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Klineberg & Hull, 1979). 또한 이민자와 체류자의 경우 현지인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의 학습이 촉진되고 일반적인 적응과 만족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Berry et al., 1987; Lysgaard, 1955; Pruitt, 1978). 전반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와 현지인의 사회적 지지는 모두 체류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역시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킨다. 그 중 대표적인 변인은 의사소통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Gudykunst & Hammer, 1988). 물론 의사소통 능력과 심리적 적응이 항상 직선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 언어능력이 심리적 안녕과 적응, 그리고 일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넷째, 적응을 할 때 그 사회에서 점유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같은 문화적응 집단 중에서도 난민의 경우는 이민자나 다른 체류자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기능장애를 호소하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떨어진다(Kim, 1988; Pearlike & Brook. 1994). 성별의 측면에서는 여자들이 심리적 증상에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되는데(Furnham

& Shiekh, 1993), 그 이유는 여성이 직장생활을 덜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의 영향은 다소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는데, 어떤 연구는 젊은 사람들이 더 적응을 잘 한다고 하고, 어떤 연구는 나이든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적다고 한다(Church, 1982). 이런 상반된 결과는 '젊다' '나이 들었다'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연령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곡선형 관계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와 노인기가 가장 취약한 기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의 수준이 더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적응을 잘하고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Jayasuriya, Sang, & Fielding, 1992).

지금까지 스트레스 대처 접근에서 문화적응을 살펴보았는데, 이 접근은 임상적인 접근보다 훨씬 과정지향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다. 문화학습 이론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둔데 반해 스트레스 대처 접근에서는 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 자원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의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담, 임상심리학의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이와 같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태여 지적하자면 문화적응 과정의 부정적인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여행이나 체류 등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경험이고, 이민도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일이다. 또한 문화적응 과정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하고 심리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실수담이 참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은 실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문화적응의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적극적으로 연구 안에 통합해 낸다면 현상에 대한 더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사회정체감(Social identification) 이론

사회정체감 이론은 Tajfel(1982)이 개발한 집단 역동에 관한 유명한 이론으로, 심리학에서 자아 또는 정체감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던 시기에 맥을 같이하여 나타난 이론이다. 앞에서 제기한 문화학습 접근이 행동적 접근이고, 스트레스 대처 접근이 정서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사회정체감 이론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사람들은 사회적 세계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시킨다는 것, 둘째는 사람들이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내집단 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정체감으로부터 어떤 자존심을 얻는다는 것, 셋째는 사람들의 자기개념은 다른 집단을 자기의 내집단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 짓는 동시에, 외집단에 비해서 내집단에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한다(Tajfel & Turner, 1986). 이 과정은 집단 간의 사회적 경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정체감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편견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는 남아있고 어떤 집단은 떠나는지, 집단의 멤버십이 어떻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문화접촉은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문화적 정체성은 문화접촉의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문화적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한 민족문화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범주화시키고 동일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화적 정체성이 문화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정체감 이론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이 한 집단과 동일시하여 그 집단의 문화적 정체감을 지니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 결과,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 집단에 속한 자신에 대한 평가도 높아진다.

사회정체감 이론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해준다. 이민자 집단은 다른 소수집단과 마찬가지로 다수 집단에 의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적인 태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만일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적 태도가 위협으로 느껴질 경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Tajfel & Turner, 1986). 하나는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다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새로운 차원에서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집단에 할당된 특성을 다시 평가하여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외집단과 직접적인 경쟁을 통하여 긍정적인 특성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다.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특성과 내집단 고정관념이 주로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민자나 체류자 또는 난민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집단에 대해 더 호의적인 비교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행동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정체감이 연령 및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연구결과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더 쉽게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Marin, Sabogal, Martin, Otero-Sabogal, & Perez-Stable, 1987), 아마도 이는 언어능력을 더 쉽게 획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빨리 동화되는 경향이 있고, 성인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동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haffarian, 1987). 여성들은 동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본국의 문화에 대해 더 강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 Verven, 1996; Ting-Toomey, 1981). 그 이유는 여성들의 경우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시간이 남성들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성들의 경우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따라서 언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로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본국의 정체성을 강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ntgomery, 1992).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현지문화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uinn, Ahuna, & Khoo, 1992),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좀 더 빨리 동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종, 이민, 문화 등에 대한 국가 정책도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사회는 동화주의적 사회보다 더 다양한 문화적응의 기회를 제공한다(Berry, 1997; Sam, 1995). 문화접촉과 의사소통의 방식도 사회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선호할수록 동화반응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rry et al., 1989; Montgomery, 1992).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이중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인지와 행동 간의 불일치이다. 이민이나 난민들은 보통 새로운 행동이나 기술을 배우기 원하지만, 자신의 태도나 가치는 변화시키지 않으려 한다(Triandis, Kashima, Shimada & Villareal, 1986). 그리스계 호주인은 행동 측면에서는 앵글로계 호주인들과 더 유사하지만, 가치는 그리스 사람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Rosenthal, Bell, Demetriou, & Efklides, 1989). 이런 결과는 성공적인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 환경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자아개념의 변화와는 독립적인 부분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Ward et al., 2001). 이러한 행동과 태도간의 불일치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은 상황에 맞도록 코드전환을 하는 것이다. Camilleri와 Malewska-Peyre(1997)의 프랑스에 사는 북미 흑인들의 연구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택하고 또래와 어울릴 때는 현대적인 방식을 택하며, 직장인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동료들과 어울릴 때는 와인을 마시지만 집에서는 마시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가치는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도 행동만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문화적 기술을 습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적 정체성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적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만 변화시키는 것은 수용하는 국가의 사람들과 갈등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보통 수용하는 국가의 구성원들은 이민자들의 음식이나 음악, 옷 등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적인 반면, 자신들의 가치와 잠재적으로 갈등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이민자들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보수적이기 때문이다(Lambert., Moghaddam, & Sorin, 1990).

사회정체감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범주화, 비교, 내집단 선호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들은 그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지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은 통합주의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지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은 현지인들이 인정을 할 때만 가능한 방식이다. 현지인들이 통합에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민자들은 외집단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 등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집단 구성원을 직접 접촉하는 것인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환경에서만 외집단 구성원과의 직접적 접촉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회정체감 이론은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비하 등의 사회적 비교가 자기-고양 편파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간 접촉에서 편견이나 차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Ward et al., 2001).

사회정체감 이론은 개인적 정체감과 집단적

정체감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문화간 이동에서 겪는 정체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중요한 측면에 대하여 이론적 틀에 근거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특히 문화간의 이동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의 근저에 있는 인지적 전략에 주목하게 한 것은 이 접근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비하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지만, 그 것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최대한 제어하면서 편견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시사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Berry의 문화적응 모델

Berry(1980, 1990, 1997)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문화적응 모델은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회정체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발달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sation)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Berry의 이론은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지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응을 할 때 이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맥락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첫째로, 전반적으로는 하나의 특정한 전략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전략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 집에서는 좀 더 자신의 문화를 유지시키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 새로 들어간 국가가 통합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니고 있다면 개인도 통합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동화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라면 사람들도 동화전략을 사용하기 쉽다. 둘째는 사람들이 발달과정에서 전략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생 동안 하나의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연령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한 연구는 아직 없다. 셋째, 개인

표 1. Berry의 문화적응 모형

차원 2	차원 1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이나 집단이 선호한 전략을 주류사회에서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동화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통합전략을 선택한 사람은 매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민자들이 통합(integration)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ishhan & Berry, 1992; Sam, 1995). 그러나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전략은 이민자들의 집단특성에 따라 달랐다. 헝가리 출신 캐나다 사람들의 1세대는 분리(separation)를 두 번째로 선호하고, 2세들은 동화(assimilation)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과 포르투갈인은 통합 이외의 다른 세 가지 모두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일본에 사는 서양인과 노르웨이에 사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분리(separation)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Berry et al., 1991). 이는 많은 이민자들이 상당부분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감을 새로운 사회에서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 방식은 다른 전략에 비해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서 통합전략이 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am & Berry, 1995).

이민자나 체류자 또는 유학생들에 비하여 난민은 많은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서 성공적인 통합이 어렵다. 그들을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하고, 많은 경우 일시적으로 머물고 떠난다. 현재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의 난민이 존재하는데 그 중 8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고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수이다. 난민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에 있는 난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난민에 대해 연구된 결과들은 제한되고 편파된 내용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연구가 이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난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적인 외상이다. 그 경험은 대부분 폭력과 관련되는데, 자신이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폭력이나 살해를 당하는 것을 본 경우도 있다(Friedman & Jaranson, 1994). 이런 이유로 새로운 국가에 도착해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공황상태, 테러공포, 슬픔, 절망, 환각,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된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억상실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바로 난민 집단이다. 이들은 사회문화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von Buchwald, 1994), 주변의 지원을 계속 받음에 따라 지나친 의존성이 생기고, 개인적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고, 무감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즉,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고자 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행동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Rangaraj, 1988). 북한이탈주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경험하였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은 소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만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사회에 나오는데,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본인이 원하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수입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좌절을 겪게 된다(전우택, 2000). 그러나 이러한 많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의 성공적 적응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Beiser(1994)가 밴쿠

버에 도착한 보우트 피플을 1981년과 1983년, 그리고 1992년에 인터뷰한 결과, 10년 후의 실업률이 캐나다의 평균 실업율보다도 낮게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캐나다의 국가수준보다 높았으며,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에서(불안, 우울, 정신신체질환)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Berry의 이론은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다양한 측정기법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특히 문화적응을 이주자가 수용국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가는 일방향적인 과정으로 보거나 또는 두 문화 사이의 어느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는 일차원적인 과정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본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차원의 관점을 제시한 것은 큰 공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 관점에 따라, 본국과 현지의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어서(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현실문제의 해결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적응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자면, 결론적으로 심리적 적응은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과, 성격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초기 모델들에 비해서 최근의 문화적응 모델들이 지니는 장점은 첫째,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정서, 행동, 인지적인 요소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문화접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적응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측면에 초점을 두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문화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 행동, 인지 요소를 봄으로써 시간에 걸친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문화적 적응의 측면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측정을 용이하도록 해주고, 따라서 바람직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도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지난 20여 년간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전개과정에서의 중요한 흐름을 몇 가지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해 본 후, 한국 상황에서 문화적응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1950-60년대의 초기 연구들이 문화접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등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접촉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낸 것이 특징이다. 초기의 연구자들이 전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사람들이 문화차이 때문에 겪는 혼돈의 문제들을 문화차이를 없앰으로서, 즉 이주자들이 수용국의 문화에 동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데 비하여, 후기의 연구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적응의 상태라고 믿게 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해야한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물 종의 다양성이 지구 생태계의 지속에 필요하듯이 인류문화가 미래에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체류자에 대한 초기의 연구자들은 새로 이주

해온 사람들이 문화접촉의 결과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문화접촉은 새로운 이주자들이 수용국의 문화를 습득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서, 문화접촉 과정에서 이주자, 관광객 등이 수용국의 주민들과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즉 문화접촉의 결과가 양방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어가면서 수용국의 주류 문화에도 교육제도, 조직문화 등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최근 30년간 많은 아시아계 이민을 받아들인 호주 사회의 변화가 그 예로 자주 거론된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론과 연구방법의 양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Ward 등(2001)은 아직도 이 분야의 연구들이 이론적 종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평한다. 관광객, 체류자, 이민, 난민 등의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따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인용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직 미흡하며, 서로 다른 이론적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를 잘 모르고 있어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도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더 체계화, 정교화해 나가는 작업과 함께, 변해 가는 지구촌의 환경 속에서 문화적응을 재개념화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론의 체계화, 정교화가 필요한 과제의 예를 들어보자. Hofstede(1980)가 지적했듯이 각 문화는 여러 차원에서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꽉 짜이고 획일적인 문화권에서의 적응은 느슨하고 다문화적인 문화권에서의 적응과는 매우 다른 과정을 거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화간의 이동이 주로 제 3세계에서 제 1세계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도 그 맥락에서 거의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연구는 문화적 특성과 적응과정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두 문화를 통합했다고 해도 그 사회가 그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적응이 될 수 없다.

문화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응하는 개인의 특성도 문화적응이론에서 더 세밀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네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느 문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였으나, 과연 그의 경우를 '주변화'되어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주변화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의식이 성취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직업적, 사회적 성공으로 이끌기도 한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다른 문화의 경험은 스트레스만 주는 과제가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경험이기도 하고, 다양성과 자유를 향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같은 상황에서도 문화적응의 과제를 더 긍정적으로 경험할 것이 다.

외국 문화환경에 처음 접한 사람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에 비하여 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옛 문화환경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귀국충격(re-entry shock)`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귀국할 때는 자기가 살던 고국으로 되돌아가므로 적응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온 후 고국에서의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외국생활을 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등은, 특히 본국문화가 보수적인 경우 재적응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세계화의 물결로 변화해 가는 환경 속에서 문화적응의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인적 교류와 교역이 늘어나고 기업은 다국적화 되고 인터넷과 위성으로 세계가 연결되어 가면서, 교육제도와 내용, 기업의 구조와 작업환경, 대중문화 등에서 여러 문화들은 서로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문화적응의 과정과 구성요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응에 대한 개념화와 경험적 연구는 문화적응 이론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심각한 문화적응의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한국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이 아주 낮고 구성원들이 매우 동질적인 사회로 지목되고 있으나, 지난 수 십 년간 문화적 접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낮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적응은 더 어려운 과제이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문화적 적응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다원화, 세계화 되어가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역시 문화접촉, 문화적응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현실문제에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가 외국인에게 배타적, 차별적이고, 외국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류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유명기(1997)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문화의 속성, 전통적 가치관을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동의 천시와 적당주의,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의사소통의 문제 등 다섯 분야로 나누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와 '남'을 구분하여 행동하는 경향은 모든 인간집단에 공통된 현상이나 한국인들의 '우리'에 대한 애착과 '남'에 대한 배타성은 좀 유별나서 자기민족과 이민족을 철저히 구별하며 일정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인과 어울리기란 쉽지 않다. 한국인은 또한 위계의식과 권위주의가 강하여 성, 연령, 지위, 학력, 재력 등을 기준으로 신분의 서열을 매기며, 그것에 상응한 행동양식을 취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상하의 신분질서로 정당화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특히 수평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온 사람들에게 깊은 모멸감과 분노를 안기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지적 활동에 비하여 육체노동을 천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강한데, 육체노동에 대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경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민족적 편견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빈부차별의식도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 가난하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자기 민족의 자질과 문화수준까지 멸시 당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은 숨길 수 없는 서구지향-동남아시아 경멸이라는 인종차별의식도 가지고 있다. 언어소통 문제도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겉돌게 만들고, 더구나 한국인의 고맥락 의사소통 문화는 설명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 서툴게 만들었다.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심리학 분야에서 문화연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이민, 유학생, 해외주재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 재일동포, 연변동포, 사할린 동포 등 근대의 역사를 통하여 이

질화되었던 민족 집단들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인의 외국문화 적응 과정,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 과정, 한국인 내의 다양한 집단들 간의 문화적응 과정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규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접촉이 문화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심리학의 문화적응 연구에서는 인류학의 연구들이 시사해준 변인들과 아울러 정, 체면, 눈치, 의례적 대화 등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독특한 특성들이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상황에서의 문화적응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응문제를 감소시키는 방법의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는 문화적응 연구의 큰 흐름에 새로운 사례, 변인, 이론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박영숙, 최상진, 박광배, 김주한. (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97-139.

법무부. (2004). 법무부 내부자료.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 1-28.

유명기.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 69-98.

유명기. (2000). 한국의 '제3국인', 외국인 노동자. 우리 안의 파시즘. 임지현 외. 삼인

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6. 서울: 도서출판 오름.

정진경. (2000).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367-422. 서울: 삼인.

정진경, 최진이, 김성민, 정진헌. (2001). 북한에서 온 내 친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남북한 문화이해지. 우리교육.

조긍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85-106.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사회성 및 보편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한규석, 김경자. (2000). 심정대화의 특성: 심정표상과 심정대화의 경험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22.

한규석, 최상진.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1.

한덕웅. (2001). 한국유학의 4단 7정 정서설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1-40.

한성열. (1994).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59-67.

한성열,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01-125.

한준상, 박현숙, 기영화, 강양원, 샤론 메리엄. (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Ahearn, F. & Athey, J. (Eds.). (1991). *Refugee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servic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Argyle, M. (1969). *Social interaction*. London: Methuen.

Argyle, M. (1982).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S. Bochner (Ed.),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pp.61-80). Oxford: pergamon.

Ataca, B. (1996, August).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s, Canadians and Turks. Paper presented at the XIII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Montreal, Canada.

Aycan, Z. and Berry, J. (1996). Impact of employment-related experiences on immigra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Canada.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8,* 240-251.

Basu, A. K. & Ames, R. G. (1970). Cross-cultural contact and attitude form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5,* 5-16.

Beiser, M. (1994). Longitudinal study of Vietnamese refugee adaptation. Toronto: Clarke Institute of Psychiatry.

Beiser, M., Barwick, C., & Berry, J. W. (1988).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Health and Welfare Canada.

Berno, T. (1995). The socioculture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tourism on indigenous cultur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anterbury, Christchurch, New Zealand.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Halsted.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pp. 9-25). Boulder, CO: Westview.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Berry, J. W. and Blondel, T. (1982). Psychological adapt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 81-88.

Berry, J. W., Kim, U. Minde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and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 185-206

Berry, J. W., Wintrob, R. Sindell, P., & Mawhinney, T. (1982) Psychologocal adaptation to culture chang among the James Bay Cree'. *Naturaliste Canadien, 109*, 965-975.

Bie, K. N. (1976). Norwegian students at a British

university: A case study of academic performance of foreign stu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 1-24.

Bochner, S. (1986). Coping with unfamiliar cultures: Adjustment or culture learning?.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47-358.

Boski, P. (1994). Psychological acculturation via identity dynamics: Consequences for subjective well-being. In A. M. Bouvy, F. J. R. van de Vijver, P. Boski and P. Schmitz (Eds), *Journeys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97-215).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Brein, M. and David, K. H. (197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adjustment of the sojourner'. *Psychological Bulletin*, 76, 215-230.

Breton, R. (1985). L'inernational des francophones hors Québec, *Revue de l'Université d' Ottawa*, 55, 77-98.

Brewin, C. (1980). Explaining the lower rates of psychiatric treatment among Asian immigrants to the United Kingdom; A preliminary study. *Social psychiatry, 15,* 17-19.

Britt, W. G. (1983). Pre-training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missionary success oversea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 213-217.

Burgeon, J. K., Coker, D. A. & Coker, R. A. (1986). Communication effects of gaze behavior: A test of two contrasting explanation. *Human Communications Research*, 12, 495-524.

Camilleri, C. and Malewska-Peyre, H. (1997). Socialization and identity strategies. In J. W. Berry, P. R. Dasen and T. S. Saraswath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pp. 41-67). Boston: Allyn & Bacon.

Chao, G., Walz, P. M. & Gardner, P. (1992). Formal and informal mentorship: A comparison of mentoring functions and contrast With nonmentored counterpart. *Personnel psychology*, 45, 619-636.

Church, A. T. (1982). Sojourner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36*, 631-639.

Clément, R. and Noels, K. (1991). Langue, Status et acculturation. In M, Lavallvée, F. Ouellet, & F, Larose (Eds.), *Identité, culture et changement social* (pp.221-234). Paris: L'Harmattan.

Deaux, K. (1996). Social identification. In E. T. Higgins and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777-798). New York: Guilford Press.

Dohrenwend, B. S. and Dohrenwend, B. P. (1978). Some issues in research in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6,* 7-15.

Fong, S. & Peskin, H. (1969). Sex role strain and personality adjustment of Chinese-born students in Americ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4,* 563-568.

Fontaine, G. (1986). Roles of social support in overseas relocation: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training. *Intercultur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361-378.

Friedman. M. and Jaranson, J. (1994). The applicability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cept to refugees. In A. Marsella, T. Bornemann, s. Ekblad, & J. Orley (Eds.), *Amidst peril and pain: The mental well-being of the world's refugees* (pp. 207-22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urnham, A. & Bochner, S. (1982). Social Difficulty

in foreign culture: An empirical analysis of culture shock. In S. Bochner (Ed.),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s* (pp. 161-198). Oxford: Peramon.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Furnham, A. (1985). Why do people save? Attitudes to, and habits of, saving money in Britai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354-373.

Furnham, A. and Li, Y. H. (1993).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hinese community in britain: A study of two gener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109-113.

Furnham, A. and Shiekh, S. (1993). Gender, generational and social support correlates of mental health in Asi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9,* 22-23.

Gabrielidis, C., Stephan, W. G., Ybarra, O., Pearson, V. M. D. S. & Villareal, L. (1997). Preferred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Cross-Cultural Psychology, 28,* 661-677.

Gardner, G. H. (1962). Cross-cultural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 241-256.

Ghaffarian, S. (1987). The acculturation of Iranians in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7,* 565-571.

Gil, A, G., Vega, W. A. & Dimas, J. M.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42-54.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 337-350.

Gudykunst, W, B. & Matumoto, Y. (1996). Cross-cultural variability of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W. B. Gudykunst and S. Ting-Toomey (Eds),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ross cultures* (pp. 19-56). Thousand Oaks, CA; Sage

Gudykunst, W. B. & Nishida, T. (1986). The influence of cultural variability on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3*, 147-166.

Gudykunst, W. B. and Hammer, M. R. (1988). Strangers and hosts: An uncertainty reduction based theory of intercultural adaptation. In Y. Y. Kim and W. B. Gudykunst (Eds),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pp. 106-139). Newbury Park, CA: Sage.

Gullahorn, J. T. & Gullahorm, J. E. (1963).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 33-47.

Haily, J. (1996).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People Management*, 2, 32-34.

Harris, A. C. and Verven, R. (1996). The Greek-American Accultura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ity. *Psychological Report, 78,* 599-610.

Harvey , M., Speier, C. & Novicevic, M. N. (1999). The role of inpatriation in global staff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earch Management*, 10, 459-476.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olmes, T. H. and Holmes, T. H. (1970). Short term intrusions into the life sty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4,* 121-132.

Hull, W, F. (1978). Foreig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ping behavior with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New York: Praeger.

Jayasuriya, S. B. Sang, D. and Fielding, A. (1992). Ethnicity, immigration and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of Australian research. Canberra: Beau of Immigration Research.

Kealey, D. J. (1989). A study of cross-cultural effectiveness: Theoretical issu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3,* 387-428.

Kim, U. (1984). Psychological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oronto: A study of modes of acculturation, identity, language and acculturative stress. Unpublish master's thesis,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Klineberg, O. & Hull, W. F. (1979). *At a foreign university: An international study of adaptation and coping*. New York: praeger.

Klineberg, O. (1982). Contact between ethnic groups: historical perspective of some aspects of theory and research. In S. Bochner (Ed.), *Cultures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pp. 45-55). Oxford: Pergamon.

Kopp, R. (1994).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policies and practices in Japanese, European, and United states multinational. *Human Research Management*, 33, 581-599.

Kram, K, E. (1985). *Mentoring at work*. Glenview, IL: Scott Foresman.

LaFromboise, T., Coleman, H. L. K.,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Lambert, W. E., Moghaddam, F. M., Sorin, S. (1990). Assimilation versus multiculturalism: Views from a community in France. *Sociological Forum, 5*, 387-411.

Lane, B. (1992).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Asian Migrant, 5,* 24-32.

Lasry, J. C. (1977).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and immigrant adaptation. *Social psychiatry, 12,* 49-55.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coping and appraisal.* New York: Springer.

Leong, C. H., Ward, C. and Low, M. L. (2000, July). Revisiting the "Cultural Fit" proposition: Personality and adjustment in two 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XV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ultusk, Poland.

LeVine, R. and Bartlett, K. (1984). Pace of life, punctuality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six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233-255.

Lin, K. M., Tazuma, L. and Masuda, M. (1979).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 refugees: health and mental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955-961.

Lin, Z. (1997). Ambiguity with a purpose: The shadow of power in communication. In P. C. Earley and M. Erez (Eds), *New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pp. 363-376). San Francisco: The New Lexington Press.

Lindsley, S. L. & Braithwaite, C. A. (1996). You should wear a mask: Facework norms in

cultural and intercultural conflict in maquilador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20, 199-225.

Lock, S. A. and Feinsod, F. (1982). Psychological preparation for young adults travelling abroad. *Adolescence, 17*, 815-819.

Lu, L. (1990). Adaptation to British universities: Homesickness and mental health of Chinese student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3*, 225-232.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45-51.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45-51.

Marin, G., Sabogal, F., Martin, B., Otero-Sabogal,R. & Perez-Stable, E. J. (1987). Development of a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 21-34.

Montgomery, G. T. (1992). Comfort with acculturation status among students from South Tex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4, 201-223.

Murphy, H. B. M. (1965). Migration and the majar mental disorders. In M. Kantor (Ed.), *Mobility and mental health* (pp. 221-249). Springfield, JL: Thomas.

Naidoo, J. (1985).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I. R. Langunes and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pp. 76-92).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Neto, F. (1995).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second generation migra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 93-116.

Niezen, R. (1993). Power and dignity: The social consequences of hydro-electric development among the James Bay Cre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7, 177-182.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Oetting, E. R. & Beauvais, F. (1991). Orthogonal cultural identification theory: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minority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5*, 655-685.

Ødgaard, O. (1932). 'Emigration and insanity: A study of mental disease among the Norweigian-born population of Minnesota'. *Acta Psychiatrica et Neurologica*, Supplement 4.

Partridge, K. (1987). How to become Japanese: A guide for North Americans. *Kyoto Journal, 4*, 12-15.

Pearson, V. M. S. and Stephan, W. G. (1998). Preferences for styles of negotiation: A comparison of Brazil and the U. 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 67-83.

Perkins, C. S., Perkins, M. L., Guglielmino, L. M. & Reiff, R. E. (1977). A comparison of adjustment problems of three international student group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8, 382-388.

Pernice, R. & Brook, J. (1994). Relationship of migrant status (refugee or immigrant) to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0, 177-188.

Phinney, J. S. (1991).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 review and integratio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3, 193-208.

Phinney, J., DuPont, E., Espinosa, C, Revill, J., & Sander, K. (1994). Ethnic identity and American identification among ethnic minority youth. In A-M. Bouvy, F. van de Vijver, P. Boski, & P. Shmitz (Eds.), *Journeys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67-183). Lisse, Netherlands: Swets and Zeitlinger.

Pruitt, F. K. (1978). The adaptation of African students to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 90-118.

Raaheim, A. (1987). Learning to learn at universit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 191-197.

Rangaraj, A. (1988). The health status of refugees in Southeast Asia. In D, Miserez (Ed.), *Refugees: The trauma of exile* (pp. 39-44). Dordrecht, Netherlands: Nijhoff.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49, 701-708.

Robertson, J. W. (1903). 'The prevelance of insanity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Insanity, 60,* 81-82.

Rogers, J & Ward, C. (1993). Expectation-experience discrepanc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7,* 185-196.

Rogler, L. (1994). International migrations: A framework for directing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9, 701-708.

Rogler, L., Cortés, D. & Malgady, R. (1991).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Convergenc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6*, 585-597.

Rosenthal, D., Bell, R., Demetriou, A. & Efklides, A. (1989). Form collectivism to individualism? The acculturation of Greek immigrant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4, 57-71.

Russel, S. S. & Teitlebaum, M. (199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Washington, DC: World Bank.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Sam, D. L. & Eide, R. (1991). Survey of mental health of foreign stu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2, 22-30.

Sam, D. L. (1995).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young immigrants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cultural chan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38-258.

Schwarzer, R., Jerisalem, M. & Hahn, A. (1994). Unemployment, social support and health complaints: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in East German refugee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4*, 31-45.

Seipel, M. M. O. (1988). Locus of control as related to life experiences of Kore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2, 61-71.

Selby, H. A. & Woods, C. M. (1966). Foreign students at a high pressure university. *Sociology of Education*, 39, 138-154.

Sethi, R. (199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among first generation Asian-Indian immigrant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Seoul, korea.

Shisana, O. and Celentano, D. D. (1987). Relationship of chronic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to health among Namib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145-157.

Sinha, D., Mishra, R. C., & Berry, J. W. (1992). Acculturative stress in nomadic and sedentary tribes of Bihar, India. In S, Iwawaki, Y. Kashima, & K, Leung (Eds.), *Innov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369-407). Amsterdam: Swets and Zeitlinger.

Stewart, M. B. (1983). Racial discrimination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Britain. *Economic Journal*, *93*, 521-541.

Stewart, S. & DeLisle, P.(1994). Hong Kong expatriat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anization*, 24, 105-118.

Suinn, R. M., Ahuna, C. &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41-1046.

Sykes, I. J. & Eden, D. (1987). Transi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6, 293-298.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Austin and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as, T. & Balnaves, M. (1993). *New land, last home: The Vietnamese elderly and the family migration program*. Canberra, Australia: Bureau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Research.

Ting-Toomey, S. (1981). Ethnic identity and close friendship in Chinese-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 383-406.

Ting-Toomey, S. (1988). Intercultural conflict styles: A face negotiation theory. In Y. Y. Kim and W. B. Gudykunst (Eds), *Theor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213-238). Newbury Park, CA: Sage.

Triandis, H. C., Kashima, Y., Shimada, E. and Villareal, M. (1986). Acculturation indices as a means of confirming cultural differences. *Intercultural Journal of Psychology, 21, 43-70.*

Vellas, F. and Becherel, L. (1995). International tourism: An economic perspective. London: Macmillan.von Buchwald, U. (1994). Refugee dependency: Origins and consequences. In A. Marsella, T. Bornemann, S. Ekblad, & J. Orley (Eds.), *Amidst peril and pain: The mental well-being of the world's refugees* (pp. 17-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rd, C. and Chang, W. C. (1997). Cultural fit: A new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d sojourne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 525-533.

Ward, C. and Kennedy, A. (1992). Locus of control, mood, disturbance and social difficulty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 175-194.

Ward, C. and Kennedy, A. (1993a).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

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at home and abroad. *Intercultural Journal of Psychology, 28,* 129-147.

Ward, C. and Kennedy, A. (1993b). Where's the culture in cross-cultural transition? Comparative studies of sojourne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221-249.

Ward, C. and Kennedy, A. (1996a). Crossing cul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of cross-cultural adjustment. In J. pandey, D. shinha and D. P. S. Bhawuk (Eds), Asian contributions 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89-306). New Delhi: Sage.

Ward, C. and Kennedy, A. (1996b). Before and after cross-cultural transition: A study of New Zealand volunteers on field assignments. In H. Grad, A. Blanco and J. Georgas (Eds), *Key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38-154).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Ward, C., Bochner, S., and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tledge.

Watson, O. M. (1970). *Proxemic behavior: A cross-cultural study*. The Hague, The Netherlands: Mouton.

Westermeyer, J., Neider, J. and Callies, A. (1989). Psychosocial adjustment of Among refugees during their first decade in the United States-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132-139.

Yau, J. & Smetata, J. G. (1993). Chinese-American adolescents' reasoning about cultural confli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8, 419-438.

Ying, Y. M. and Liese, L. H. (1991). Emotional well-being of Taiwan students in the U. S.: An examination of pre-to post-arrival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345-366.

Zeira, Y. and Banai, M. (1981). Attitudes of host-country organization towards MNC's staffing policies: A cross-country and cross-industry analysi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6, 493-503.

1 차원고접수 : 2003. 10. 15.
수정원고접수 : 2004. 6. 5.
최종게재결정 : 2004. 6. 10.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Psychology
2004. Vol. 23, No. 1, 101-136

Recent Developments in Acculturation Theories

Jean-Kyung Chung
Chungbuk University

Kye-Min Yang
Hanyang University

Research on culture travel, culture contact and acculturation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1980's. The research not only increased in quantity, but also went through qualitative develop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paradigms with reference to psychological theories in various fields. This paper reviews the major concepts such as between- and within-society contact, culture shock and psychological acculturation, and consequences of acculturation. It also examines major research topics for various acculturating groups such as immigrants, sojourners, refugees, ethnocultural groups and tourists. The developments in research in major theoretical paradigms, culture learning,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social identification theory, and Berry's acculturation theory were reviewed. Finally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in acculturation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Korean situ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acculturation, culture contact, culture shock